

정부 ‘북극항로’ 개척 속도전...여수·광양항 대응전략 절실

전남도, 북극항로 정책세미나

“글로벌 물류질서 재편...기회 살려야”
부산항과 함께 ‘남해안 거점항만’으로
전남도 전담조직 설립·지원대책 시급
금지사 “정책적 지원·제도 마련 최선”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북극항로’ 개척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광양항 특화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수·광양항이 컨테이너를 제외한 화물과 항만 인프라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부산항과 함께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북극항로 시대, 여수·광양항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권항엽·문금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남도·여수시·광양시·여수광양항만공사가 주관한 정책 세미나에는 전남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련 기관 관계자,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김영록 전남지사가 31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구축 정책 세미나’ 행사에서 주요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등이 대거 참석해 여수·광양항의 미래 비전과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현덕 순천대 물류학과 교수는 ‘북극항로 시대, 여수·광양항의 기회와 도전’ 주제 발제에서 부산항과 여수·광양항이 경쟁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파트너로서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이유로 ▲수소·철강·암모니아 등

에너지·자원 가공·저장·재분배 복합에너지 중심 항만 발전 가능성 ▲광양항 배후 스마트 물류 체계와 철도·산단 기반시설 연계 해운·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구축 ▲부산항과 역할을 분담하는 남해안 북수항만 전략 핵심축 기능을 꼽았다.

이를 위해 지역 항만을 중심으로 한 북극항로 대응 전략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북극항로는 단순한 항로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물류 질서의 재편을 예고하는 대전환점”이라며 “기존의 항만 경쟁 구도를 넘어 항만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의 기능을 분담하는 새로운 해운항만 생태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여수·광양항은 우리나라 미래 해양 경제의 퍼즐을 완성할 중요한 조각이자 핵심축”이라며 ▲전남도 민·

관 북극항로 전담조직 설립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연계 거점항만 육성 지원·발전 계획 수립 ▲북극항로 대응 연구 과제 발굴·국제 협력 강화 ▲액체 벌크화물 운송 특화항만 지정 ▲해상 병거림 거점항만 육성 ▲중대형 수리조선업 인프라 구축 등 연관산업 확대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수범 (사)한국북극항로협회 사무총장은 ‘북극항로 시대가 열린다·여수·광양항의 기회와 도전’ 주제 발제를 통해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사무총장은 대응 전략으로 여수·광양항 주도 북극항로 실증사업 추진, 실증사업 성공을 위한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최 사무총장은 “전남도 북극항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실증사업 예산 지원·제도적 기반 마련, 범정부적 북극항로 지원 체계와 협력 구조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북극항로 신규 화물 유치를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및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수·광양항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해양물류 거점으로서 충분한 잠재력과 준비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국회, 정부, 지자체, 산업계, 학계와 긴밀히 협력해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도약하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전남서 대규모 실증

범정부추진단 구성 로드맵 마련
‘재생 에너지+ESS+AI’ 소규모
전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산지소’ 방식 수급 균형 도모

이재명 정부의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지역에서부터 대규모 실증사업을 통해 본격화한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해 지역 단위에서 안정적으로 전기 생산과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을 단장으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구성해 로드맵과 세부 추진 계획 마련 작업

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전력을 소비하는 배전망 단위에서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력망은 송전망에 연결된 대형 발전기의 전력이 전국의 수요처로 전달되는 ‘단방향’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달리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배전망에 주로 직접 연결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배전망을 타고 가까운 수요처로 보내지고, 남은 전기가 송전망으로 다시 전송되는 ‘양방향’ 계통을 의미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많은 지역의 소규모 전력망에 ESS를 대규모로 추가하고 AI 관리 기술까지 더해 특정 지역 안에서 생산된 전기가 그곳에서 쓰이게 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방식의 수급 균형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국내에서 가장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발한 전남 지역에서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 실험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남 지역을 광역 단위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전력시장과 관련한 규제 특례를 과감하게 적용하고 대규모로 ESS 설비를 구축해 전력망 유연성을 강화한다.

산업단지, 대학 캠퍼스, 공항, 군부대 등에도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다양한 기술의 실증에도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차세대 전력망으로 지역 에너지 분권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유럽에서 마을 협동조합이 마이크로그리드를 공동 설치하고 지역 발전에 활용하는 것처럼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익 공유 시스템 마련으로 에너지 취약 지역 마을을 RE100 마을로 전환하는 사례도 다수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연합뉴스



시의회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

지역밀착형 교육 의정역량 강화 기대

광주시의회는 31일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광주지역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사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주관한 지방의원 직무연수는 광주지역 지방의원 및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광주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직무연수에는 신수정 시의회의 의장과 강기정 시장,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및 5개 자치구의회의 의장 등이 참석했다.

직무연수는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직원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정책·직무·소양 교육 등 총 3개 과목의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신수정 의장은 “광주지역 현실과 의정활동을 밀접하게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원들과 사무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담양송이마을

수익형 (소득형) 전원마을

토지 분양

[국내 최대 스마트팜 재배단지]

토지 분양가격 : 담양 최저가 3.3㎡당 50만원

1차 분양 입주완료

2차 토목공사 완료 - 선착순 위치선택

자동화시설

로 누구나 가능한 "고수입" 보장합니다. 참송이 버섯재배로 월소득 500만원 이상

은퇴후 노후걱정

담양송이마을에서 준비하세요!

- * 수익형 전원주택(전원생활+소득)
- * 전원주택, 농가주택 건축, 창고시설
- * 참송이버섯 재배사(스마트팜)
- * 세컨하우스, 주말농장(체류형 쉼터)

참송이 버섯

- 자연산 송이와 같은 고품질 버섯
- 자연산 송이처럼 생식할 수 있음
- 최신 자동화 시설 - 노동력, 기술력 절감
- 35일 간격 수확 - 자금회전이 빠름
- 암 치료제 - 베타그루칸 26.2% 함유
- 참송이 재배교육 - 10년 이상 참송이를 재배한 경험자들이 직접 지도해 드립니다

기반시설 조성

재배사+관리사+휴게실 (세컨하우스)

스마트팜 자동화시설

1:1재배교육 (기술지도)

송이마을

전남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31-6번지

062)222-0037 / H. 010-4323-5252